

온 지구촌에서 살생을 저지르는 모든 테러집단을 멸하고 생사의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탈레반 아프간 장악 이슬람극단주의 무장세력 부활 세계 언론, 알케에다/IS 공조 협력으로 전면테러 양상 전개 가능성 우려

2001년 9-11 테러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미군 철수와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 재집권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이 빠진 '제국의 무덤'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탈레반 2기를 짚어 본다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전면 장악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부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지난 18일 "탈레반의 승리는 아프간에서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세력의 재건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극단주의 매체를 감시하는 시테인텔리전스 그룹을 인용한 WSJ 보도에 따르면 친알카에다 성향의 미디어 계정은 최근 "탈레반 형제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아프간은 정복됐고, 이슬람은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초당적 중동연구소의 찰스 리스터 반테러정책국장은 "(탈레반의 카불 입성은)이심할 여지없이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알카에다에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 쉴 공간과 안전한 피난처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징후는 곳곳에서 비치고 있다. 인도 매체 더힌두는 18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파키스탄 기반 무장단체인 자이시에모하메드(Jem) 등 극단주의 세력 대원들도 혼란을 틈타 카불에 입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가 카불에서 탈레반의 세력이 크지 않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다.

IS는 알카에다의 경쟁조직이자 탈레반과도 긴장관계에 있다. 머지않아 탈레반이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내전을 벌인다면 혼란상이 가중될 수 있다.



서방 정보당국은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의 재건 시기를 재평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분석에 따르면 미군철수 이후 18개월에서 최대 2년 안에 재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탈레반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정보당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체는 알카에다다. 알카에다는 오래전부터 아프간을 기반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탈레반과 역사적,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편이다. 정략혼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01년 10월 미국의 아프간 침공은 탈레반 정권에 오사마 빈 라덴 등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내놓으라는 요청을 아프간 측이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발간된 유엔 안보리 제재이행 보고서도 이들의 관계에 주목했다. 지난해 2월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발간된 보고서는 "탈레반은 미국과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알카에다와 협의를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탈레반-알카에다의 접점이 되는 세력은 '하카니 네트워크'다. 탈레반 지도부인 시라주딘 하카니(38)가 이끄는 조직이다.

킹스칼리지런던 안보연구소

의 피터 노이만 연구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많은 단체들이 미국에 대한 승리를 선전하기 위해 편승하려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위험 요소는 이들이 소셜미디어(SNS) 캠페인으로 '나홀로 행위자'에게 국제적인 테러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국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6일 TV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의 성지가 돼선 안 된다"며 "테러단체는 아프간에 존재하며, 불안정에서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이슬람 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탈레반의 카불 입성 직후 "아프간이 테러가 자생하는 터가 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합의 없이 아프간의 새 정부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IS가 집결하게 되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돌팔매나 참수 같은 비인간적인 형벌을 허용하고 여성의 전신을 구속하는 부르카를 강제한다. 이는 이슬람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아랍어로 '샤리아(sharia)'는 무슬림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알라를 향한 길'을 뜻한다.

(3면으로 계속)



공립학교 마스크착용 의무화 논쟁

VOA, 미 언론의 주지사 vs. 교육구 대립 보도

미국 학교들이 대면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몇몇 주에서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주 정부와 교육구가 대립하고 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상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주 내 몇몇 교육구는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에 맞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GOP governors, school districts battle over mask mandates: Mask rules in U.S. public schools vary widely. Eleven states require masks, while seven other states prohibit mask mandates. The rest leave it up to local officials).

현재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보면 최근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28%가 두 지역에서 나왔다. 그런가 하면 애리조나에서도 지난 6월 이래 코로나 신규 확진 건수가 6배나 뛰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지사가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다. 관내 몇몇 교육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에 맞서 주지사가 이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되

고 있다. 이들 지역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이유는 먼저 수업 중에 마스크를 쓰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또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각하게 아픈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주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존에 나온 CDC 권고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용렬 목사



3면
푸른초장
김창설 목사



9면
본사방문
박성현·장현경 박사부부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k2book.com | c/o: 1919@k2book.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담임목사 청빙

본 교회는 설립 53주년을 맞이하는 PCA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주일 두 번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복음 전파와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 온 교회입니다.
신실한 담임 목회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1. PCA 소속이거나 가입에 적합 하신 분
2. 정규 신학교를 졸업,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4. 합법적으로 미국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시민권/영주권자)

제출서류

1. 이력서 (본 교회 소정양식) 및 가족사진
2. 최근 설교 2편 (음성/영상 파일 혹은 웹 주소)
3.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력서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kucp.org/pastorinvitation>

제출 및 문의처
이메일(Preferred): PulpitCommittee@kucp.org
우편 주소: Pulpit Committee KUCP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제출마감: 09/11/2021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The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Website: www.kucp.org E-mail: pulpitcommittee@kucp.org

발행인 칼럼

사모는 없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렇다. 성경 어디에도 "사모"라는 단어가 없다. 명칭이 없으니 그 말해진 일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성경뿐 아니다. 세계 어느 교단의 헌법에도 목회자의 아내에 대한 명칭이나 역할을 진술해 놓지 않았다. 나름대로 내규가 있는 교회에도 "사모의 권한과 기능" 등과 같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교회는 한 곳도 없으리라.

그러나 있다. 한없는 책임과 끝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사모는 있다. 특히 한국교회 더더욱 한인 이민교회에는 사모의 강력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모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참느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모에게 남다른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은 다반사이다.

사모는 그 자신이 안수를 받은 성직자도 아닌데 성직자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거룩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사모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데 사모에겐 크나큰 의무가 있다.

사모들의 이야기와 사모에 대한 이야기가 붓물처럼 쏟아졌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되었던 필자가 속한 노회 가족수련회에서의 일이다. 이번 수련회에 다른 강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모든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강사였다. 책박한 이민 땅의 이민목회자를 내조해온 사모님들의 감춰진 이야기, 묵묵히 목회의 길을 따라온 아내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목이 메어 말을 멈출 때가 많았고 아예 대놓고 우시는 일도 있었다.

"제가 목회자의 아내가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어느 날 자장면 집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보채는 거예요. 그날 호주머니에는 자장면 한 그릇 값밖에 없었어요. 무작정 네 사립이 들어가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아이 둘이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아내와 나는 식탁에 놓인 노란 무만 집어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날보다 금식한 날이 더 많기도 했지요." "남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던 분이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먼 나라에 선교센터 짓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70만불에 대출까지 받아 100만불 현금 하자고 했을 때 아내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나 다시 태어난다면 그대와 또 다시 결혼할 것입니다." "아내가 나의 가장 위대한 설교학 교수입니다." "가족 식사만도 챙기기 힘든데 매주일 성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아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새벽예배를 일년 열두달 하루도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새벽예배 설교를 주일설교와 똑같이 정성스레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의 강의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나?" 묻는 강의가 있었다. 정답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어머니"였다. 맞아. 어머니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깊고 위대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누구나 알아준다.

사모는? 모든 어머니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르는 사모. 어떤 어머니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모를 알아주는 자는 없다. 자녀는 물론 목사 남편도 잘 모른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회 현장 어디에도 그는 말없이 있다. 그가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TGC, 난민사역전문가마크 모리스 목사가 밝힌 새 시대 맞게 된 아프간 교회 소개

“아프간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탈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 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고 한다”라고 마크 모리스 (Mark Morris, Union University's Memphis College of Urban and Theological Studies)는 도시신학과 학과장이며 난민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화 시키는 사역을 하는 멤피스 난민센터의 리더가 전했다.

그는 아프간 현지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무혈 입성하기 전에 점점 더 다가오는 이슬람 극단주의 광풍에 어떻게 아프간 목회자들이 처절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질곡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하신다고 믿고 있다(How Afghan Pastors Reflect on God's Sovereignty).

7월 초 아프간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아프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앙을 등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독교로의 개종 자체를 금지하는 이슬람 공화국에서 기독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교회 지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참된 믿음을 법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와 비행기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른 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나온

는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이 아프가니스탄의 형제자매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이 그 도시와 국가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펴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우리 자신의 오만과 마주했다. 그는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단지 그의 진흙일 뿐이다. 우리는 또 이사야서 8장과 이사야서 28장을 통해 기초석과 거칠게 하는



탈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

적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부에 신앙을 등록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셔서 정말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마쳤고, 체포되지 않았다.

게 마을을 빼앗긴 신실한 신자에게 대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한 아프가니스탄 목사의 말을 들었다. 이 신실한 형제의 열네 살 딸은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나와 탈레반이 “결혼”이라고 부르며, 그리고 여자라면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이슬람 특권과 책임”이라고 부르는, 사실상 성노예로 끌려갔다고 했다. 토요일 들어서 탈레반이 이미 카불 거리를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아프간 친구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또한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를 바라는 현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떠날 수 없었다. 도로

는 재앙이었다. 때때로 바로왕은 자신의 마음을 안고하게 만들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방에 있던 한 아프가니스탄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덧붙였다.

들의 이미지를 목상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모두는 탈레반이라는 폭풍우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초석인 예수님이라는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야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7장 6절과 예레미야 43장 10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확실하게 탈레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펼쳤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

우리는 언젠가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비밀 교회모임에서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이 주었던 훈계를 요약하는 것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 1.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맞아야 한다.
2.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겸손한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맞아야 한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featuring medic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featuring dent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1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합니다.

Details regarding the application process, including dates (2021년 9월 10일),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APC.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예매 and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설 과목 시간표 (Biblical Greek I, OT Historical Books, Soteriology).

박사 과정 안내 (Doctor of Ministry and Doctor of Theology) including admission requirements and curriculum details.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탈레반 아프간 장악...

(1면에서 계속)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교의 신도는 현재 18억 명, 세계인구의 4분의 1에 가깝다. 무슬림 중 대다수는 폭력에 반대하지만 과격주의자들은 다르다. 절도범의 양손을 자르고 간음하면 돌팔매질을, 반역하면 침수형

에 처한다. 아프가니스탄 연구학자 헤더 바는 "탈레반이 해석하는 샤리아 법은 주류와 동떨어져 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기괴하다"라고 급진 과격주의의 위험도를 한마디로 지적할 정도다. 탈레반은 카불을 점령하자마자 알카에다와 IS 소속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의원은 "우리는 20년 전의

상황에 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고 9.11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전면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또 다른 '테러와의 전쟁'을 상기시킨다. 테러 단체들의 자금줄은 양귀비다. 아프간 외곽에서 많이 재배되는데 양귀비에서 추출한 헤로인은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해왔고 수익은 매년

20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 따라서 아프간을 무대로 넉넉한 자금 조달을 가진 과격 이슬람 세력들이 미국이나 서구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다면 사실 지구촌 테러는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아주 강력한 이슬람 이념이 존재가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립학교 마스크착용...

(1면에서 계속)
CDC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자녀보호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문제는 교육이나 주 정부가 아닌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

육구들은 CDC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마스크 착용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것에서 보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주들 상황은 살펴보자. 공립학교 상황을 보면 관련 규정이 다양하다. 먼저 캘리포니아와 켄터키주 등 11개 주는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반면 플로리다와 텍사스,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7개 주는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했다. 애리조나주는 오는 9월 29일부터 이 조치가 적용된다. 그리

고 나머지 주는 지역 정부에 결정을 맡겼다.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시시피주에서 많은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시시피주에서 학생 약 2만 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가격리 중이다. 2만 명 이상이라면 미시시피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약 4.5%를 차지한다.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은 지난 9월 이래 학생 4천500명 이상과 교직원 약 950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아이 약 2천 명이 병원에 있는데 많은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고 일부는 나이가 네 살 아래라면 상황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성인용 코로나 백신은 나왔는데 아이들을 위한 백신은 아직 없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2면에서 계속)
3.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고난과 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4.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다.
5. 마지막으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

로 당신의 백성을 고통과 격동의 바다로 인도하신다. 찬양 리더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골랐다.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 아프가니스탄 형제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방금 사임했습니다. 이제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다 빼앗긴대도/진리는 살아서/그 나라 영원하리라/아멘. 월요일 아침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말에 예비하



신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린다. 이 어려운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탄식하며 울었다. 주말을 기점으로 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프간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탈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 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고 한다. 여기 멤피스에서 사역하는 한 아프간 목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 단어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그는 어떻게든 Mohabat.tv와 facebook.com/afghantv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소망의 메시지를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라이브 방송할 것이다. 토기장이는 오늘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토기를 만들고 있다.

시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정보교회)

지난 두 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슬프게 한 사건이 있다. 아이티에 지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11년 전에 지진으로 22만명이 목숨을 잃은 후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노예로 잡혀와 수백 년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오는 질문이 있다. It is not fair,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현재 전 세계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뉴스가 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인다는 소식이다. 탈출하기 위해 비행기에 붙었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내 아이라도 살려달라고 담장 너머 미군병사를

향해 아이를 집어던지는 엄마의 애절한 눈빛. 아프가니스탄은 99%가 무슬림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나라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 몇 년에 이슬람권 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전파되고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그러나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함으로써 앞으로 기독교인은 모두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에게나 드는 의문이 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수많은 사람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시편의 아삽과 같이 질문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시편73:2). 한 마디로 주님, 이걸 아니잖아요? 복음성이 가사는 "하나님 한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를 노래하지만 우리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을 때 불합리한 세상에 아파할 때 신자로서 마음껏 불평하지도 못하고 고통 할 때가 왜 없겠는가? 필립 안시의 책 제목이 떠오른다. Disappointed with God(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Jennifer Rothchild는 God Is Just Not Fair(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라는 책의 제목으로 논평을 퍼뜨린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과연 존재하시는가?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누구도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다.

때로 풀리지 않는 고난 앞에 신앙의 위기를 맞는 사람도 있다. Bart D. Ehrman은 그의 책, 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Why We Suffer(하나님의 문제: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고난에 답하지 못한다)에서 자신이 왜 신앙에서 떠났는지를 밝힌다. 저자는 미국의 보수적 학교인 무디신학교와 위튼대학교를 졸업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를 포기한 사람이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진다. 문제는 떨어지는 것이 참새가 아니라 이제 20살도 경험해보지 못한 청소년이라면, 이제 한참 자라나는 아이를 두고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40대 아빠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이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는가? 이런 질문까지 나오기 마련이다. 주님, 세상이 이런데 제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신앙인에게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최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책에서 저자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마침내 고백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이지도 모른다."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세상이 다 불합리하게 보일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가슴이 무너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이런 최악 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무너진 인간 세상에 치유가 있고 해결이 있다. 주님, 부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preachchrist@kcpc.org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갈보리장로교회는 미국 Missouri 지역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PCNA) 소속 교회로서 1991년 설립한 이후 2002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30년 동안 복음전파를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자격
미국장로교회(PCN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회경력: 5년 이상 / 이민목회 경험자 / 나이: 40-55세까지)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 동영상 (CD, DVD, Web address)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 목회경험 / 신앙고백 / 신앙 간증 / 성장배경 /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추천인 1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9월 19일
제출처: chapparko1@gmail.com
Calvary Presbyterian Church 110 Susie Dr, St. Robert, MO 65854

기타
1.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 (Word, PDF).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청빙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갈보리장로교회 청빙위원장

미주크리스천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아프카니스탄의 사태를 보며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기가 지는 많은 시련과 피흘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우리는 옛 그제 아프카니스탄이 무너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보았다. 흉남 철수나, 월남 패망의 순간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재현하는 것일까 싶다.

아프카니스탄에서 20년간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를 선포한지 단 몇 개월 만에 보인 참

사이다. 20년간 그 많은 돈을 투입하였고, 자주국가로 설 수 있도록 30만 군대를 훈련시킨 결과치고는 허망했다. 이태리 신문 기사를 보니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등에서도 군대 파병은 물론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토록 쉽게 무너진 이유가 집권자들의 부패 때문이었다고 한다. 도와주는 돈은 공짜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귀중한 것인데도 받는 입장에서 마치 요술주머니에서 샘솟듯 나오는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른다. 위기의 순간이 오자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탈출하였는데,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 일부는 공항에 남겨두었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나만 살고 배부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게 된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함께해야 할 텐데 말이다. 나이가 70이 넘는 대통령이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지 놀랍다.

이런 패망의 상황을 TV로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우리 역시 미군이 6.25전쟁 후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강국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있을 까 싶다.

며칠 전 간첩단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들은 데모를 주도했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고 한다. 아프카니스탄이나 월남이 패망한 이유도 내통하는 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다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상태가 해이하게 되면 실전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역사적으로 자유를 지키려는 그리스 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페르샤 군은 줄곧 대평원에서 20만의 대군을 이끌던 다리우스는 그리스 군 1만에게 대패했다.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고 군대의 수가 많다는 점이 전쟁에서 필연적인 승리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공격하는 자는 뚝뚝 무쳐졌는데, 지키려는 자는 애국심이 없다면 그 싸움은 벌써 패한 것이

기 때문이다. 아프카니스탄은 30만의 군대라고 했지만 허수였고, 싸움 의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철수를 결행하자마자 짧은 시간에 국가가 전복되고 말았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후 지금까지 대를 이어 적화통일에 대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가공할 핵까지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방어해야 할까?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려 해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이 가니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뽑는 새 지도자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현실이다. 그것이 가장 위협스러운 문제다 싶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며 유례없는 독재로 적화통일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제도 하에 사상과 행동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정원을 없애라, 미군 물러가라고 소리 높여 외쳐댄다.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들은 그런 외침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조금씩 그 외침에 부합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공산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데, 그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풍요와 자유가 가져다준 결과가 아닐까 싶다. 자유는 언제나 강력한 힘을 근거로 지켜지는 것인데 유약해져가는 징후가 보여 불안하다. 이런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유사시를 위해 이태리처럼 우리도 전술핵을 소유할 수 있다면...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에베소서에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은 곧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교회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 모습이 이 에베소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는지,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단지 바울이라고 짧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교회가 3년 넘게 자신들을 목양했던 바울사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곧 바울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꿈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나 사람의 환상을 본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

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도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꼭꼭 짚어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녔고 내 목소리로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고 내 육신을 상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갔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목인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는 존재,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

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소가, 우리의 physical address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의 아비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당시 편지를 쓸 때에 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지만 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이 에베소서의 '은혜와 평강'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들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삶에 은

혜와 평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진 셈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평강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강은 나만 평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내 옆의 사람이 나로 인하여 평강이 깨졌다면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강이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대신 값을 치루신, 곧 속량하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사도는 로마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매여 있는 몸입니다. 유대교의 축복받던 리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엘리트였던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보면 찬송이 아니라 한숨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도 바울사도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8면으로 계속)

“찬송하는 교회” 에베소서 1장 1-14절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사회공산주의 사상 캠프로 변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실체

오늘은 Prager University의 설립자이자 라디오 호스트인 Dennis Prager 교수가 학부모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alert하고 있는 이야기를 간추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목사님과 저 또한 지난 10년간 공립학교의 실체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대도시들뿐 아니라 하와이 같은 여행지로 유명한 주들을 비롯하여 미전역에 있는 공립학교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 온 세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잘못 세뇌시킨 사회공산주의로 넘어갈지 매우 심각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안을 가장 먼저 (first-hand로) 받아보는 단계이기에 주정부와 미연방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주정부나 미연방정부) 결국은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의 현 바이든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저희 한인 이민가정들과 교회들뿐 아니라 최고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다운 미국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미국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Dennis Prag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좌익 세력의 공격에 놓여 있다. 그리고



Love your mother Earth(지구본) 등 반기독교 교육표시들임

그 공격이 향하고 있는 곳들은 바로 자유가 보장되는 학교, 가정, 어린이들, 정부 기관들, 스포츠, 뉴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의료계, CIA, FBI, 주정부 부서, 군대 등을 포함한 모든 삶의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반기독교 좌익 세력에 맞서기 위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오는 것이다.”

데니스 프레거 교수의 설명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거 포인트를 번호로 적어 정리해드립니다.

1.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을 대표하는 STEM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들에서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는 그다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가?
2. 제대로 된 학습을 가르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조지성애화 교육을 유치원부터 가르치면서 당신 자녀들의 순결을 빼앗아 가고 있다.
3. 거짓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젠더 성교육과 마약을 아무렇지 않고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수업등등 공립학교의 수업들과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아이들의 지성과 정신(mentally)에 큰

악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상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 현실임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는가?

4. 미국을 설립했던 가장 기본되는 최고도 가치관들을 모두 다 왜곡시켜서 “악”이라고 가르치며 미국을 노예를 부르기 위해 설립된 나라로 역사를 왜곡시켜 가르치고 있다. Critical Race Theory가 바로 그 본질.

5. 그 심각성은 수업시간에 한 특정인종을 중요하는 인종 차별 중심의 교육을 하기에 바쁜 나머지 예술, 음악 같은 과목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미국에서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마치 자녀들을 가지고 도박(gambling)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7. 바이든 현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다 다시 바꾸어 오바마 전 대통령시대로 돌아가면서, 다시금 수많은 유치원생부터 배우는 것은 바로 ‘성별은 네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8. 유치원생부터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교학적이고 아이들의 정신과 육신에게 치명적인 내용들을 가르친다.

9. 법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들은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boys and girls”로 부르지 않도록 하는 주정부와 공립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증거다.

10. 당신의 자녀들은 클래스에서 자위행위를 배우며 자주 할수록 건강한 거라고 배우고 있다. 11. 1학년부터 요란한 여장을 하고 여자 가발을 쓴 트랜스 남자들이 읽어주는 “Drag Queen Story Hour”에 참석하도록 거의 강요당하고 있다.

12. 당신의 자녀는 이런 학교에 매일 다니면 빠르면 한달, 아무리 길어도 1년만 되면 그들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강력 반기독교 사상을 펼친 막시즘 사회공산주의 운동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공립학교의 실체를 알고 자녀들을 계속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무엇이 답인지 알면서도 선불리 할 용기가 나지 않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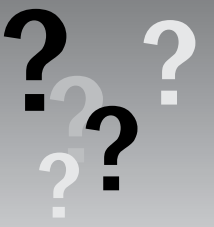
공립학교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을 빼내는 것은 급선무이긴 하지만 what's next?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별하며 그 소위대로 갇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을 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호세아 4:6-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금이 포스트모더니즘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더니즘시대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차이를 비교해 알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견지에서 이 두 사상 체계와 사조를 비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버에서 이희은

A: 질문에 돌로 나누어 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모더니즘시대의 사상체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더니즘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여 계몽주의(Enlightenment) 이후에 생겨난 사상 사조로 근대주의(Modernism)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승구 교수의 ‘광장신학’을 참조해 설명합니다.(p.348-360).

1)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에 의해서도 이성(이성)이 중시되었지만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은 한층 더 강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앉혔습니다. 이성중심을 강조하다보니 성경도 이성으로 비평하여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 모더니즘사상은 한마디로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입니다. 2)객관성을 강조합니다. 근대사상에 의하면 이성이 파악한 것만 객관적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선호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치부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만 객관적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성 중시, 객관성 강조, 인간중심주의

3)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적 경향입니다. 근대사상은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관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보에 대한 신뢰는 케플러가 말한 “비행기술이 발명되기만 하면 그 즉시 달에 인간 식민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진보의 이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허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겠지만 인간은 날로 약해지고 미래는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4)인간중심주의(humanism),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인간의 능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고 행복과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를 가진 위대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휴머니즘의 이상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인류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신앙이나 종교도 인간들에게 유익을 줄 때에야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중심이고 성경중심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성을 추구하는 근대주의는 이성(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객관적인 진리와 실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성에 따라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진 르네상스 이후의 보편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 및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 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교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미국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던 패턴에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불편함으로 돌아가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에 종사자들에 대하여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과 개인 기업에서도 우리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개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열린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 일년 반 동안 두려움이 전 세계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 미래에 대한 공포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오히려 두드러지게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평소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했다면 그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평온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란과 고난 속에서 가장 크게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때론 포기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로 이끄신다는 고백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것을 지켜내야만 그 고백이 진짜가 됩니다. 그런 삶으로의 경배와 감사야말로 우리의 예배요 삶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

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21세기의 팬데믹이 어떤 유익이 있었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했는가는 확증해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은 유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 모임, 온라인 쇼퍼와 배달, 인터넷을 통한 연구, 랜선 투어 등등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유튜브 영상과 비대면 훈련 및 쌍방향 통화의 성경공부 등 상상을 초월할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대신에 선교지에 보낼 영상제작, VBS 영상 나눔 등등 너무 많습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이런

진전은 앞으로도 요원했을 것이 오히려 상황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인내의 믿음은 지금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교회는 언제 어느 때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다. 다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얻는 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이다”(시143:10).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어선에 세워진 십자가 강제 철거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는 지난달 중국 저장성 취산도 당국자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어선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사진)를 강제 철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배에 새겨진 '임마누엘'이라는 문구를 지우기 위해 페인트로 덧칠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이 지역 공무원은 지난 1일 어업 금지가 풀려 어업을 준비하는 어민들에게 안전을 이유로 십자가 철거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어민은 어업 허가와 연료 구입을 할 수 없다며 압박했다.

취산도는 인구 약 7만명 중 3분의 1이 국영교회인 삼자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까지 합하면 섬 인구 대다수가 기독교인일 것으로 보인다.

취산도에 복음이 들어간 건 150여년 전이다. 1863년 영국의 선박 한 척이 암초에 충돌해 침몰하자 취산도 어부들이 선원 24명을 구해주면서 영국 영사관은 감사의 뜻으로 '예수님, 빛을 비취주세요(Shine Jesus Shine)'라는 글구가 새겨진 대형 평판을 어부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선교사들과 성경을 보냈다. 이후 배에 십자가를 세우는 건 취산도의 전통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 문구를 자신들의 집 현관과 배에 새겼다.

탈레반 장악 아프간... 현지 기독교인 위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일 아세아연합신학교 중동연구원 교수는 18일 "탈레반은 반기독교 정서가 극단인 집단"이라며 "미국의 철수는 생각보다 빨랐고, 기독교인들은 탈레반이 장악했을 때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도 지난 16일 "탈레반이 신속히 진격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더 대담해졌다"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아프간 전역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나 기독교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아프간은 여행금지 국가라 외교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할 수 있다. 한국국제선교협회나 위기관리재단이 확인한 바로는 한국 선교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탈레반이 외국 국적의 기독교인들은 아프간을 떠났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남아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이다. 릴리스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간의 한 교회 지도자도 릴리스와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에서 망명해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알리 에사니도 이탈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아프간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한 상황을 알렸다. 에사니는 "카불에 살고 있는 가정과 최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부와 다섯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며 "그런데 아이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돌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인 게 알려지면서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아프간 주변국은 페르시아어로 지역, 장소와 땅, 나라를 뜻하는 '스탄(-stan)' 국가다. 국명이 스탄으로 끝나는 중앙아시아 7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이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다른 나라들도 인구의 80% 이상이 이슬람교다. 김 교수는 "현재 스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종교적 이유로 감안했을 때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도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민과 중동 사역을 해온 선교사들은 위급한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 중동국가에 있는 A선교사는 "탈레반이 여성인권 존중 등 조건부 변화를 예고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아프간에는 많은 지하교회가 있다.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이라고 말했다. 터키에서 난민 사역 중인 B선교사는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탈레반, 소수민족 민간인 9명 학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공세를 펼치며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종파가 다른 소수민족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BBC 등 외신은 20일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해 탈레반이 지난달 4~6일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에서 9명의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가즈니주 말리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하자라족 주민들은 당시 탈레반과 정부군 간의 전투가 격화하자 산으로 피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시 문다라크트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곳엔 약탈을 끝낸 탈레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탈레반은 비무장 상태인 주민 6명의 머리에 총을 쏘 숨지게 하고, 나머지 3명은 잔인하게 고문한 끝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시신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들이 "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려 하나"고 질문했지만 탈레반은 "전쟁 중엔 모두 죽는다. 총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 없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속한 하자라족은 아프간에서 인구가 3번째(9%)로 많지만, 탈레반의 세력 기반인 파슈툰족(42%)에 의해 줄곧 탄압받아왔다. 파슈툰족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인 반면 하자라족은 아프간 내 소수 종파인 시아파인 탓이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 당시 하자라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이들을 고향에서 내쫓았다. 최근에는 중부 바미안주에 있던 하자라족 지도자 압둘알리 마자리의 석상도 파괴했다.

엠네스티는 이로 미뤄 최근 탈레반이 내놓고 있는 유회적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를 상기시킨다"면서 "이는 탈레반 통치와 가처를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적 살인은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자들이 탈레반 통치하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유럽 "동맹 회복 외치더니 실망"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 실망한 유럽 사회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외교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가 불과 2개월여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정책이 영국을 흔들고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약속한 동맹이 아니라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동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에 나서며 '동맹 회복, 대서양 연안 국가와의 관계 재확립, 동맹 및 다자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강조했다.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는 이런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톰 투겐다트 의원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 '미국 고립(America alone)'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영국은 미래의 안보 작전에서 미국과의 관계 조건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집권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기독교민주연합 요한 외데폴 부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아프간을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게 좋은 생각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매우 짜증 나는 상황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레미 사피로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연구소장은 "미국은 적어도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고, 정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성 없는 월요일 연설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고, 동맹국으로서의 미국 신뢰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뉴트 킹고리치 전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에 "미국 정부가 20년 동맹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발생한 리더십의 대형 실패를 전 세계가 목도했다"며 "대만, 유럽, 한국, 혹은 다른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TGC,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 소개

미국 복음연합(TGC)은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에 대해 글을 올렸다. TGC는 "우리는 잔인한 이슬람주의 정권인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탈레반이란 이름은 '학생'을 의미한다. 원래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이슬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및 남부 파슈툰 지역의 종교학생(탈레반) 운동이었다.

둘째, 탈레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코란과 전쟁 훈련을 받았다. 원래 탈레반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는 그들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은 무장단체로 조직됐다. 학생들은 공부에만 참여하는 그룹과 종교전쟁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그룹 등 두 그룹으로 나뉜다.

셋째, 탈레반은 아프간 내전 동안 집권했다. 1979년 12월 당시 3만명의 소련군은 공산주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88년 철수 전까지 10년간 주둔했다. 소련철수 이후 내전은 96년 정부가 탈레반에게 넘어갈 때까지 계속됐다.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구원을 위한 연합이슬람전선(United Islamic Front)으로 알려진 아프간 북부동맹은 탈레반에 반대하기 위해 96년 말 결성됐다. 북부동맹은 미군이 이슬람정권을 전복시킨 2001년 9월까지 탈레반 정부와 방어 전쟁을 치렀다.

넷째, 미국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으

다. 2020년 2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철수하고 최대 5000명의 탈레반 전투 및 정치범을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협정에 탈레반과 서명했다. 그 대가로 탈레반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아프가니스탄 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다섯째, 탈레반은 인신매매와 성노예에 가담했다. 탈레반은 집권하는 동안 강제결혼과 성노예를 이유로 여성을 자주 납치했다.

여섯째, 탈레반은 특정 이유를 위한 목적으로 소년병을 징집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6살부터 세뇌를 시작하고 최대 7년 동안 탈레반 교사 밑에서 종교과목을 계속 공부한다"고 말했다.

일곱째, 탈레반은 인권을 짓밟는 역사가 있다. 90년대에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사회적 통제는 '악덕과 덕'의 경찰로 알려진 도덕공무원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됐다. 이들 관리는 지역사회를 순찰하면서 복장과 품행, 수염 길이, 남성의 금요기도 참석 여부,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 사용과 관련해 탈레반이 규정한 사회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여덟째, 탈레반은 소녀와 여성을 억압한 역사가 있다. 90년대에 탈레반이 집권하자 여자대학을 폐쇄하고 거의 모든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도록 했다. 탈레반은 여성의 의료 접근을 제한했고 복장 규정을 잔인하게 시행했으며 여성이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

아홉째,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역사가 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크리스천은 탈레반이 어떻게 신자들을 장악하며, 향후 어떻게 탈레반이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알려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두려움을 퍼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15살의 독신 소녀가 있으면 탈레반 군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포스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딸을 그들에게서 빼앗겨 탈레반과 강제로 결혼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뇌를 위해 종교 학교인 마드라사로 보내질 것입니다. 부모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한 남성은 자신의 집이 현재 탈레반의 소유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예품을 만드는 단순한 사람이고 그의 모든 재산은 집에 있습니다. 탈레반은 기독교인의 소유와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의 모든 여성을 빼앗을 것입니다."

"진보언론들, 탈레반과 이슬람 연관성 지우기 중"

미국 남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인 알버트 몰러(Albert Mohler Jr.) 박사가 탈레반 배후의 '이슬람 신학' 지우기에 나선 진보 언론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몰러 박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더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한 탈레반과, 무장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IS)' 및 그 연계 조직 등 이슬람 극단주의의 증가에 대해 다뤘다.

그는 미국의 일부 매체들이 탈레반을 설명하는 데 '아이시스(ISIS)'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그들이 '이슬람' 또는 '이슬람교'라는 단어 사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레반이 세속적 군대가 아닌 현실에 대해 주류 언론이 얼마나 무관심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가상의 침묵을 듣고 있는지 주목하라. 그들은 이슬람 전사들로 구성된 지하디스트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 좌파의 신화에서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며 "종교적 세계관의 충돌에서처럼, 이슬람에 대한 언급은 위장된 인종차별이거나,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불감증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칠 시간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행하신 고별선교 후 하나님께 올린 긴 기도의 일부이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을까? 예수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제자들의 하나는 4번이나 반복된 기도의 중심주제였으며, 이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셨다.

현대교회는 본질과 본연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교인들이 떠나거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그리 대수로운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마치 세 포본질을 통해 몸이 자라듯 그런 방식의 분열의 과정을 통해 지상교회가 확장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불감증을 지니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교회역사가 처음부터 불일치와 분열의 길을 걸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되신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우려하신바 지상교회는 결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최초 예루살렘교회는 물론 그 후에 복음전파로 세워진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한 예로 고린도교회는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았다. 이런 내적갈등은 성도들의 영적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향한 복음전파에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교회는 역사를 거듭할수록 ‘하나됨’의 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왔다. 현재 지상교회는 상당히 많이 분열되어있다. 각자 나름의 성경해석과 전통에 근거하여 교리와 체제를 세우며 독립된 길을 걷고 있다. 자신들의 역사와 경험을 옳은 것이라 신념이 강할수록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예수께서 올린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배타적인 태도를 지닌 일부 중심으로 탄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근거로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됨에 대해 불감증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하나 됨?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각성운동이었다. 개혁자들이 결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중세교회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교’와 ‘신교’로 불리는 역사적 결과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다. 로마가톨릭교회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분리되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신교가 구교를 의도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구교가 성경적 교회로의 환원을 꿈꾸며 요구하던 종교개혁자들의 소원을 거부함으로써 신교 출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약 5세기가 흘렀다. 구교는 아직 로마교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가톨릭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의 교회를 중시하여왔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톨릭교회 안과 밖으로 인간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 성경해석에 충실한 신학자들부터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성을 추구하는 신학자

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적 교회론을 거부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가 행한 고별선교의 핵심이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분명한 의무를 가르치신 바 있다. 이 사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한 진리이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제외시킨 신앙공동체를 교회라 부를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이다. 결코 인간이 구상한 작품이 아니다.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단지 지상교회는 예정되어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영적 교회’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보이는 교회-제도적 교회’로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마13장) 등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됨’이란 교회의 거룩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자들의 노력이 아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근거하여 존재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달랐기 때문이다. 통일된 교회에 대한 비전과 열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개신교가 유럽전역으로 확장되면서 세워진 개신교회는 각 나라의 정치 및 사회적 환경에 의해 더욱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생겨났다. 각 교회마다 자신들이 가장 바르게 하고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현재 제도 바르게 한다는 신념 뒤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흑백논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교회는 서구의 개신교의 역사로부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수용하였을 때 그들이 속하였던 교파와 교단이 추구하는 교리와 체제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신념도 전달받았다.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초기에는 이런 차이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난 신학논쟁의 결과 각 교단이 연속적인 분열을 경험하였다. 그 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령주의 운동, 자유주의신학, 그리고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에 소개된 뒤 한국개신교는 더욱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각자만의 분명한 길을 걸어왔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1)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27) - 교회의 분열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교회분열은 구성원 사이 갈등이 결정적 교회공동체 조직과 결속 다지되 성도의 십자가복음 안에 거함 전제돼야

들까지 신학적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겉으로는 예수께서 그토록 소원하였던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됨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연합체이다. 영적 또는 신학적 통일성은 포기한지 오래다. 단지 자율적 정권이 커짐에 따라 강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상에 대해서는 큰 관용을 베풀고 있다. 그 결과 로마가톨릭교회가 중시하는 것은 구조 안에서 공존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개신교는 겉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구교와 달리 외부적 분열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 듯하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분열을 정당화한 것으로 여기는 개신교를 향해 예수께서 원하셨던 ‘하나됨’을 어기고 있다며 조소하고 있다.

복지단체나 사교클럽이 아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름이 없이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훈훈한 교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공동체라 불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소원하셨던 교회의 일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그들 사이의 돈독한 영적관계를 전제한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한 땀에 참여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지상교회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잠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로마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종식된 후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교회를 정의한 도나투스파 분리주의자들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 벌어졌다. 그들은 소수의 배반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무리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형성되었다.

어거스틴의 근본사상은 교회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이

각자의 길

어거스틴의 초대교회 교회론이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변질되었다. 가톨릭교회가 가르친 교회의 보편성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권위가 인간으로 구성된 교회 자체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복음의 선포가 참 교회의 표지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 새로운 교회역사를 밝게 된 개신교의 지속적인 분열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각 교파와 교단의 교리와 교회체도가 다른 것을 복음 이해의 다양성이라 포괄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 됨에 대한 불감증은 극히 정상적인 것인가?

개혁자들은 출발부터 “바르게 한다!”라는 정신을 중시하였다. 초기에 생겨난 개신교 계파들은 한 마음으로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였지만 이들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를 향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초기에는 성만찬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하더니 점점 서로를 향한 비판이 날카워졌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럽 및 미국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분열역사를 통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교리 또는 체제의 차이라는 명목상의 이유를 말하지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결정적인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교단 또는 교회가 서로 갈라질 때 하디한 경우 주도권을 다름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이해관계로 촉발된 집단경쟁의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촉발한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의 소원인 동시에 지상교회를 향한 명령이다. 각 교회공동체마다 조직을 강화하고 결속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각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성도는 모인 단체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된다. 나아가서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굳이 각자 강조점을 달리하는 다른 교파와 교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 특정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다양성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covenantcho@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with 6 columns and 4 rows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including contact info, addresses, and service times.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8)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4.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체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멸시하는 죄에 빠져 있다. 교회 일치를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교황주의자들은 오랫동안 가톨릭교회(보편교회)란 이름을 오용해왔다. 종교를 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이 기독교 세계 전역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고약한 죄이다. 교회 전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문제이다.

연약하고 병든 부분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그들과의 교제도 만약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법적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를 소원하게

워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의 말씀이 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의 일은 나의 사업이요 인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나의 목적이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간절히 권한다. 가장 필수적인 진리에 대해서만 마음을 합하자.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들은 서로 용납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다른 복잡한 신조들은 만들지 말자. 이를 위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면한다.

1)성도들과 특히 전체 교회가 관련하여 논쟁을 벌여온 양분된 견해에 대해서는 어느 편에도 큰 강조를 두지 말자.

2)자유지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예정 등과 같이 결국

다. 이것은 그의 알미니안적 신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잔재라고 볼 수 있다.

3)실체도 없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논쟁들에 큰 강조를 두지 말자.

4)성경이 우리에게 전파된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낯선 신앙관에 대해 너무 강한 주장을 하지 말자.

5)좀 더 순수하고 분별 있던 시대의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신앙관에 대해서는 큰 강조를 하지 말자.

6)사도시대 이후 어느 한 세대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반대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큰 강조를 두지 말자.

5. 우리가 교회 규율을 적용하

대한 배신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태만과 게으름은 것은 분명하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는 게으름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의무를 도외시해왔고, 꺼려왔다”고 고백한다. 징계는 참으로 수고스럽고 고통스런 일로서 자기부인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이로 인해 우리에게 대해 기분 나빠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와 다른 불신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다가 당했던 것과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징계는 결

‘화평’에 대한 이해는 알미니안적 신학 잔재 보여 자기부인 없으면 하기 어려운 징계 회피는 게으름

만드는 이유는 대개 교회정치의 올바른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소한 것들이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롬12:18). 화평은 경건의 확실한 친구이다. 경건은 언제나 화평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오류와 이단은 화평에 의해 자라나고 또 불화는 이단에 의해 생기고 성장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다. 한 마음과 한 영혼과 한 입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과 경건을 복돋우고 죄를 경고하며 장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함께 누리며 즐거

철학적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익한 논쟁들에 큰 강조를 두지 말자(필자에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백스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신앙의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역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백스터의 목양 강조 일념과 연합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입장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리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가늠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있어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징계와 같은 공인된 의무를 행하는데 게을리 해왔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게 하려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되 다만 종이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고 다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귀중히 여기고 이를 헛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규례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징계는 교회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징계를 행치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에

코 헛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못하겠다고 핑계 댈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칼과 불로 우리의 겸손을 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벧전4:17).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죄이다. 우리가 대낮에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는 숨길 수 없다. 이를 덮으려 하면 오히려 우리의 죄와 수치가 커진다. 죄를 저질렀으면 자발적인 고백과 겸손 이외에는 우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

hyojungyoo2@yahoo.com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리고 이 에베소서와 받고 있는 에베소서교회도 이렇게 찬송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찬송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나 박사 음성 잘 못 맞추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내 중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울려드리는 찬송 위에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서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울려드리는 찬송 위에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 교수)

관용과 타협

여름 방학 동안 가까운 산으로라도 며칠 가족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 그런 시간을 찾지 못했다. 가족휴가 대신 막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떠나기 전에 샌디에고 사는 큰 아들 집에 이박삼일 다녀오기로 했다. 가족이 함께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야구장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아들 집 주변을 걸어 다니려니 건물마다 동성연애를 표현하는 큰 무지개 배너가 걸려있는 것이 유난히도 많이 눈에 띄었다. 샌디에고는 워낙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그 무지개 배너가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교회 입구 앞에도 길게 드리져 있는 무지개 배너가 너무 당황스러웠다. 아마도 지난 6월이 “게이 프라이드의 달”이어서 동성연애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무지개 배너를 다 걸었던 것 같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성연애를 지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 걸려있는 무지개 배너는 또 무엇인가? 만약 그 배너가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아무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배너가 “우리는 여러분이 동성연애자인 것을 지지합니다”라는 의미였다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이후 동성연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게 대한 관용(tolerance)을 넘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기독교인에게는 어려운 이슈이다. “평등(equality)”을 강조하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결국은 성 정체성을 선택의 자유가 있는 영역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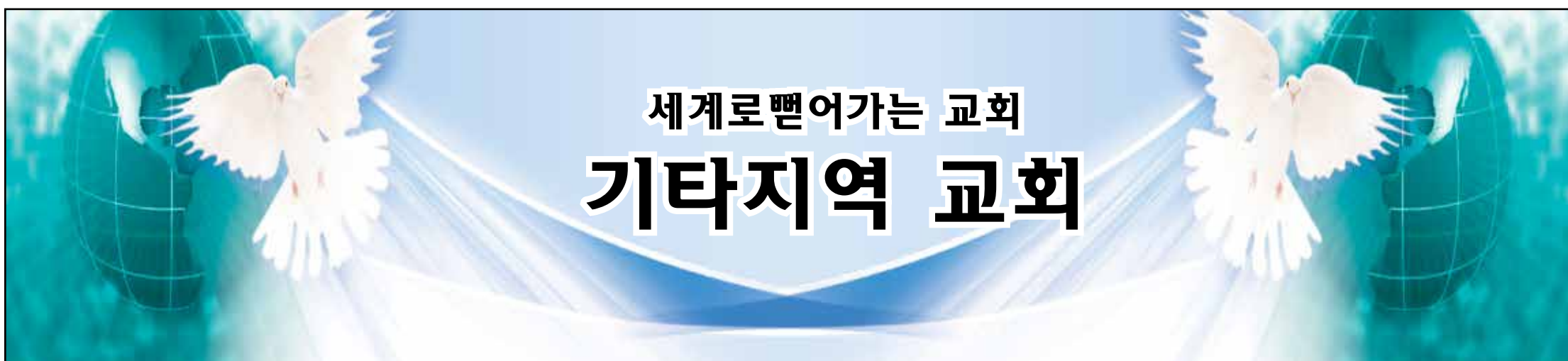
성소수자를 옹호하지 않으면 마치 지성인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간다. 그러나 평등법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도덕성은 참으로 도전 받게 될 것이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나의 행동의 기준도 맞고, 당신의 행동의 기준도 맞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굳이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말자는 매우 근사하게 들리는 관용의 자세이다. 문제는 종교에도 상대주의가 들어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애매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는 뜻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극단적 크리스천들처럼 불교사원에 가서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용납하지는 않는다.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은 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일은 아닌 것이다.

한국에 계신 형부는 총각시절 집사님 직분을 받았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요즘 가끔씩 교회 밥이 맛있다고 교회를 가신다고 한다. 밥은 맛있는 핑계일 뿐 기독교에 드디어 관심을 가지시나보다 하고 내심 기뻐하였다. 나이가 여든을 넘긴 형부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세례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최근에 Facebook에 올리시는 형부의 글을 보니 친구와 함께 절에 가서 108배를 했다는 등 사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올리고 계셨다.

우리 형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와 불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닌 타협이 될 것이다. 상대주의가 만연하는 시대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디너: 헌영 잔도: 하루 목요일 오후 4:00-7:00 Tel. (773)9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66	벅스키온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예: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0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3)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inton, MA 01748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예: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6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2021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K-GOSPEL BAND CONTEST

포스트 팬데믹, 가스펠 밴드로 함께 합니다.
온 세대가 찬양으로 위로와 회복이 되는 K-가스펠 밴드!

총 상금
\$14,000

접수기간

2021년 8월 1일(주일) ~ 9월 15일(수)

접수방법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kgbc.com) 참조바랍니다.

예선: 2021년 9월 29일(수) 온라인 영상 심사

본선: 2021년 10월 27일(수) 무대공연 심사

참가부문: 보컬 밴드(3인 이상)

참가자격: 크리스천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참여 가능 (교회연합 밴드 우대함)

참가비용: 1인당 \$50

시상내역: 대상- 상장, 음원/영상 제작지원 및 상금 (총\$5,000/1팀)

우수상- 상장, 음원/영상 제작지원 및 상금 (총\$6,000/2팀)

특별상(작/편곡, 보컬, 연주부문)- 상장 및 상금 (총\$3,000/3팀)

*본선 입상자 전원 G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및 각종행사 공연 참여

주최/주관: GBC 미주복음방송 (am1190 in LA)

특별후원: 미주 CGNTV / CTS America

협력기관: 총현선교교회 / KCMUSA / Lighthouse Studio / OneHeart / Overflow Ministry

크리스천 BAND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